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한선교 소식지

두리하나

2018
상반기

www.durihana.com

통권85호

“내가 북한에 있었다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의 교육 실험 / 와글와글합창단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자랑 - 1인1악기 / 태권도 / 바리스타 / 멀티미디어

한쪽 다리 없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 ... 패럴림픽이 준 선물

SPECIAL

“탈북 엄마와 춘미의 기적” 휴스턴 국제영화제 최고상 수상





북한선교를 위한
두리하나 월요모임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 두리하나교회 본당

문의 : 02-532-2513

북한선교를 위한 두리하나의 기도

- ▶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 ▶ 중국과 제3국에서 유리방황하는 탈북동포의 자유를 위하여
- ▶ 현장 사역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사역의 형통함을 위하여
- ▶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 ▶ 두리하나 국제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가정인 그룹홈을 위하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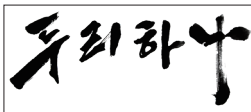
2018 | 상반기 | 통권85호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하는 천기원목사.



- 04 : “내가 북한에 있었다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 07 : “탈북 엄마와 춘미의 기적” 휴스턴 국제영화제 최고상 수상
- 09 : 탈북 자녀들에게 띄우는 5월의 편지
- 10 :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의 교육 실험
- 11 : 와글와글합창단
- 12 :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자랑
- 14 : 한쪽 다리 없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 ... 패럴림픽이 준 선물
- 16 : 소년조선 명예기자·탈북 초등생... 한자리 모여 ‘남북’ 주제로 대담
- 18 : 부치지 못하는 편지
- 20 : 섬김의 은혜
- 22 : 급식봉사
- 23 : 두리하나 국제학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자원봉사자 모집
- 24 : 두리하나소식
- 25 : 제16회 탈북동포 주일 기념예배
- 26 : 후원신청서
- 27 : 후원방법



두리하나 제호는 우리나라 최고 수목화 애니메이션 작가인 탁영환 감독의 붓글씨 작품이다. 두리하나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날 글자인 ‘두’에 힘을

을 실고, ‘십자가로 모든 걸 귀결시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의 획으로 ‘나를 완성했다.

발행처 사단법인 두리하나 | 발행일 2018년 6월 8일
 등록번호 서초 라00278 | 발행인 천기원
 편집 이경희 | 디자인 김대원 | 연락처 02-532-2513
 인쇄 한일문화사 02-2274-7011

소식지는 두리하나 웹사이트(www.durihana.com)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었다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Park Hana(38세)는 15세 때 고아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위암으로 사망하셨다. 이로 인해 북동부의 청진 해안 도시의 거리에서 떠돌며 기차역에서 잠을 자며 지냈다. 그녀는 이 나라에 무수한 “꽃제비” 중 하나가 되어 거리의 고아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친척들에 의해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버려졌습니다. 동생과 저는 기차역에서 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얻어먹거나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저에게 중국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바로 그녀를 따라나섰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나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금 그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이 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기독교 대안학교이다.

그녀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탈출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직 북한에 사는 동생을 위해서, 그녀는 이름이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날은 어두웠고 우리가 걸어 가야할 두만강은 눈과 얼음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국경 수비대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비대가 없을 때 꼼꼼히 얼어 버린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도망쳤을 때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동행 한 여인은 인간 밀수업자였다. 그녀는 조선족 중년 남성에게 약 2500 달러에 팔렸다.

“그때 저는 19살이었지만 키가 작고 제대로 먹지 못해 실제로 보이는 나이는 12살 정도 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은 내가 너무 어리게 보여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데려온 어머니 집에서 잠깐 지내다가 그 집 둘째아들 와이프가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나는 보수 없이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를 친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어느 날 그녀는 이웃 사람의 신고로 경찰들에게 잡혀 복송되었는데 그때가 2004년 이었다.

“그들은 저를 구치소에 가두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심문을 하였고, 허리에 찬 벨트로 나를 때리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중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지 또 한국 사람을 만났는지를 물어보면서 고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일명 “단련대”에서 매일 매일 죽을 만큼 힘든 하루를 보내던 중에 한 여성이 도망치자고 하는 말을 듣고 기적적으로 단련대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녀와 다른 여성은 그렇게 52일 후에 단련대에서 탈출했다. 다시 그녀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망쳤다. 몇 달 후 그녀는 무사히 한국으로 갈수 있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살았던 지옥 같은 나라에서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 나는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십시오.” 현재 중국의 한 집에 북한 여성이 성 노예로 감금되어 있다. 이제 그녀의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천기원목사는 말했다.

북한의 북부 출신 인 32세의 한 여성이 메시지로 구조요청을 해 왔다. 지난 10개월 동안 그녀는 감금되어 화상채팅으로 일을 해야 했고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천 목사는 가능한 한 많은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우선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그들을 중국에서 구출한 후,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는 사업가로서 호텔을 개업할 기회를 찾고자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북,중 국경강가에 한 시체가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나는 북한사람들이 탈북 하다가 빠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내 인생이 뒤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목숨 걸고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1년 12월 결국, 천 목사는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감옥에 체포되었다. 8개월 동안 그는 중국 북부 지방에 수감되어 물과 밀가루 빵을 먹으며 독방에서 지냈다. 이제 그는 북한에서 유명하다. 천 목사는 독재 정권의 뉴스 방송에 인간 밀수꾼으로 묘사되어 나온다.

나는 친구들이 그림고, 고향음식이 먹고 싶어...



혁이(13세)는 4년 전, 아버지,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다. 혁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 준다. 통일 된 한국을 보여주는 듯.. 녹색의 한반도가 두 개의 비행기로 장식되어 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여행하는 모습인 것 같다.

“제가 북한에 살았을 때 우리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산 다고 들었습니다.”

혁이학생을 처음 본 순간 많이 놀랐다. 그는 13세이지만 9세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한국의 13세 보다 약 30센티 정도가 작다.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 50여 명 중 한 학생으로 그는 비교적 이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6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

“한국생활도 좋지만 고향 친구들이 그림습니다. 우리는 솜바꼭질도 했고, 때때로 나뭇가지로화살을 만들어 놀기도 했어요. 고향에서 먹던 음식도 먹고 싶고...”

원혁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내 꿈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 목사님처럼...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로버트 나(21세)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왔다.



“탈북청소년이나 탈북2세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아픔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함께 생활해보니 육체적인 아픔은 물론 마음의 상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은 편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하며 삶의 이유를 찾는 모습들을 봅니다.”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로버트 나(오른쪽)

Durihana International School [In Seoul] 은 2009 년 한국의 천기원 목사가 설립했다. 현재 학교에는 초,중,고등 약 50 명의 학생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부모이고 부모의 돌봄이 어렵거나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다.

천목사는 국제학교를 통하여 통일한국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중국에서 애타게 구조요청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탈북자들의 안전한 구출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AFTENPOSTEN-

탈북 母女 다룬 TV조선 ‘탈북엄마와 춘미의 기적’ 美 휴스턴 국제영화제서 다큐 대상

탈북 후 중국서 강제 결혼한 여인, 척추 다친 딸 치료한 사연 담아.
“부시 前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



TV조선 휴먼 다큐 ‘엄마의 봄날—탈북 엄마와 춘미의 기적’(2017년 6월 25일 방송) 편이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인 대상(플래티넘)을 받았다.



허리에 복대를 한 춘미(맨 왼쪽)양이 어머니 주수진씨와 함께 신규철 박사로부터 수술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TV조선




시상식에 참석한 다큐 주인공 추춘미(17)양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미국 사람들도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며 “발표 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들이 ‘엄지척’해줬다”며 웃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남도 예정돼 있다. 춘미양을 돕고 있는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62) 목사는 “부시 전 대통령 주변 분들이 춘미양이 등장하는 TV조선 프로그램을 보고 사연을 전했다”며 “텍사스 미들랜드에서 열리는 기독교 행사에 참가하는 길에 시상식도 보고, 부시 전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춘미양은 중국인 아빠와 탈북자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때 자신을 중국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3년 전 혼자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타향에서 외톨이로 지내다 그만 아파트 9층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를 당했다. 하지 마비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엄마의 봄날’ 제작진과 연결돼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2015년 6월 처음 방송한 ‘엄마의 봄날’은 ‘엄마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를 모토로 전국 각지 어머니들을 찾아가 무료 수술을 해주는 재능 기부 프로. 배우 신현준과 척추 전문의 신규철 박사가 진행을 맡고 있다. 춘미양은 작년 6·25 특집으로 어머니 주수진(44)씨와 함께 출연했다. 탈북자인 주씨는 중국 시골로 팔려가 강제 결혼한 뒤 춘미양을 낳은 아픈 사연을 안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낮에 어디를 가든 사람이 따라다니고, 저녁에는 시아버지가 방문을 걸어 잠갔다”며 “그 집에서 딸을 낳고 자유의 나라 한국을 찾아가는 꿈을 키웠다”고 했다. 2012년 어느 날 “엄마, 한국 가서 돈 벌어 올게”란 말을 남기고 라오스와 태국 1만km에 이르는 긴 여정을 통과해 남한에 정착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혼자 찾아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딸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방송에선 딸이 회복되는 과정과 두 모녀가 서로 아픔을 감싸 안는 장면이 그려졌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뉴욕 영화제에 이어 북미에서 셋째로 오래된 국제적 영화제이다. 뉴욕, 밴프 미디어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지역 3대 국제 미디어 행사로 꼽힌다. 이학준 PD는 “세계 75국에서 4500작품이 출품된 큰 행사였다”며 “세계인들이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마의 봄날’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50분 방송한다. 

탈북자녀들에게 띄우는 5월의 편지



김영란(두리하나USA 선교사)

사랑하는 자녀들아! 긴 겨울이 지나고 5월의 화창한 봄날이 되었구나. 지난겨울이 너무도 춥고 길다 보니 이 오월의 봄이 어느 해보다도 찬란하고 봄의 향연이 더욱더 짙은 꽃향기로 온 대지에 가득 하구나.

이렇게 조물주께서 아무런 대가없이 거저주신 모든 생수 같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과 나무들마다 갖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우리 모두 살아 숨 쉬고 있는 대지 위에서 한껏 자유를 누리며 우리들의 출입까지도 지켜주시는 창조주께 날이면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날들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대들은 참으로 귀하게 선택되어 이곳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사회보장이 다 주어졌으니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넓은 대륙에 발을 딛고 어깨를 쭉 펴고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대들은 독일의 역사를 아는가? 100여년이 넘도록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동, 서독의 장벽이 무너진 기적. 동독 어느 교회의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이 20여명의 청년들과 기도시작을 계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기도모임에 참여하여 874마일이나 되는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57만 명의 기도자들이 모여 거리로 뛰어나가 함성을 지르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연장을 들고 나가 그 길고 긴 장벽을 다 허물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나라 분단된 155마일밖에 되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하루속히 그대들도 남북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통일된 고향으로 달려가 제2, 제3의 예루살렘을 건축할 사명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처럼 고향을 향하여 하루에 한 번씩 만이라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내년부터 초·중·고 정규과정에 합창 수업... 함께 노래를 불러보면, 함께 사는 법 알게 되더라




마크롱 공약... 예산 250억원 배정,
아이들 자신감 커지고 결속력 배워.
계층·지역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모차르트나 바흐 곡 부를
수 있게 해.
음악 수업 지속적으로 받으면 수학·암기 능력 등도 향상돼.

프랑스 파리 13구()의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합창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아니씨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합창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고 했다. 합창단원 사브리나(13)양은 “수줍음을 많이 타서 예전엔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걸 싫어했지만, 2년째 공연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날 ‘플로베르 합창단’ 공연을 관람한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과 프랑수아즈 니센 문화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창을 프랑스 초·중·고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창 수업은 플로베르 중학교처럼 일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돼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합창 수업을 정규 과정에 별도로 포함하는 건 처음이라고 일간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니센 장관은 “(합창 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클래식 음악과 재즈 등의 고전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계층이나 지역 등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한 번쯤 모차르트나 바흐의 곡을 불러보게 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블랑케르 장관은 “합창 시간엔 내성적인 아이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합창은 여러 목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라며 “합창은 즐거움 속에서 아이 간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랑스 남부 도시 페르피냥에 사는 제레미(14)군은 유럽1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에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다”며 “노래를 부를 땐 공부할 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합창 수업은 학업에만 치우쳐 있던 아이들의 삶에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스테파니 데제씨는 “합창 시간에 영어 또는 독일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와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프랑스 부르고뉴대가 초등학교 1학년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음악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학은 25%, 암기 테스트는 75%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캐나다 토론토대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래와 피아노 수업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은 이전보다 아이큐 테스트 결과가 상승했다. 

2017.12.22 조선일보 김선엽 기자



꿈꾸는아이들

와글와글합창단


와글와글 합창단은 아직 뛰어난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래보다는 연애에 더 관심 많고, 공부 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소년, 소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덟 살에서 열 여덟 살까지로 구성된 합창단원의 고향이 모두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고아,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년, 소녀들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개개인의 놀라운 탈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합창단원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에 설립된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국내 최초의 탈북 청소년 국제 대안학교입니다. 탈북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양육하며, 나아가 미래 통일 한국에 필요한 일꾼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이 시간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유를 찾아 헤매는 탈북자들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겹게 한국에 온 탈북자들 역시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실력은 모자라지만, 작은 통일의 첫걸음을 노래하는 아이들을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자랑

이 은혜 (두리하나 국제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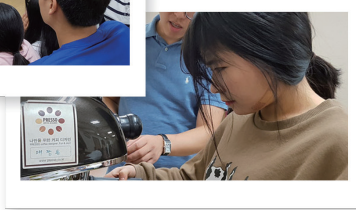
1인 1악기 교실



악기와 레슨비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두리하나 오케스트라는 그저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1인1악기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루트,트럼펫 등으로 연주하는 '와글와글 오케스트라'의 합주[]는 '네 시작은 소음[]이지만 네 나중은 감동의 화음[]이 되어 카네기 홀에서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날을 꿈꾸며 '와글와글 오케스트라'스럽게 출발합니다.



바리스타 교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커피는 믹스커피 밖에 모르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원두의 종류를 배우고, 샷을 내리고, 라떼를 만들더니 어느새 제법 바리스타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던 20명의 학생들이 바리스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만들고 맛을 보던 학생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그 날까지도 걱정하고 긴장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응시생 중 7명이 바리스타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두리하나 미니 카페에서 그 동안 값고 닦은 바리스타 실력을 뽐내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교실




두리하나 국제학교 초등학생 전원은 태권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체문화인 태권도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초등반 학생들 이지만, 태권도장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태권!”을 외치며 겨루기도 하면서 더욱 유대감을 느끼고 체력도 기르며 다가올 통일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실



두리하나에는 뉴질랜드에서 자원봉사로 건너오신 실력파 멀티미디어 나 명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 코딩 수업이 생길 정도로 4차 산업시대 대비가 중요해지는 지금, 두리하나에서는 IT와 영상을 접목한 멀티미디어 수업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동아리를 창단하여 십 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성장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외부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며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리하나 학생들이 영상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한쪽 다리 없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 ... 패럴림픽이 준 선물

특별히 할 말이 없어도 만남 자체만으로도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 GCC Jae Park 목사님과 지훈형제, 이재은 커피목사님과 Amy자매, 2018 평창 패럴림픽 개최식에서 의족을 찬 채 줄을 잡고 슬로프를 오르는 성화 봉송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고,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동메달)을 획득 한 아이스하키 대표 팀의 주장 한민수 선수가 ‘두리하나’를 방문했다.



다섯 살 소년이 집 앞 공사장에서 놀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치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른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 지나면 다리가 다시 날 거야”라고 말했다. 아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잘린 다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정승환(31).

‘빙판 메시’라 불리는 대한민국 파라 아이스하키(썰매 하키) 대표팀의 골잡이다.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우썰탄)’에서 정승환은 말한다.

“어릴 때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지난 18일 막을 내린 평창 겨울패럴림픽에서 한국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3~4위전에서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죽을 힘을 다해 승리를 지킨 선수들은 빙판에 둥글게 모여 태극기를 펼쳐 놓은 뒤 ‘무반주 애국가’를 불렀다. 모두 울었다.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 장애인훈련원에서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주장 한민수(48) 선수를 만났다. 그는 은퇴경기에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골수염을 앓아 어릴 적부터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는

평창에서 동메달 타고 은퇴하는 썰매 하키 대표 한민수 선수



한민수 선수는 '강릉하키센터'를 딱 메운 7000여 관중의 함성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응원 덕분에 가진 것 이상의 에너지를 발휘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더라'며 전문 강사로 나설 뜻이 있음도 밝혔다.

30세에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그는 장애인 역도 대표선수를 거쳐 2000년부터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지켜 왔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중 5%인 250만 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 90%가 중도장애죠. 이들을 분노·좌절·원망의 골방에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게 스포츠입니다. (정)승환이 말처럼 스포츠는 장애를 받아들이 수 있는 자신감을 주거든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을 앞두고 대표선수들이 '패럴림픽 보이콧'을 내세우고 시위를 했다.

"장애인 스포츠를 더 이상 재활과 복지 차원에서 보지 말아달라. 엘리트 스포츠로 인정하고 거기 걸맞은 처우를 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스포츠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고, 2005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다.

지난 21일 만난 전혜자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은 "평창 패럴림픽에는 단체보다는 개인·가족 관람객이 정말 많았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에는 수백 명이 표가 없어 돌아갔다.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다. 미디어의 힘이 컸다. 이전 '반짝 관심'이 아닌 '장애인 체육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선수는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휠체어에 앉아 경기를 한다. 파라 아이스하키도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통합을 꿈꾼다. 

[중앙선데이] 2018.03.24 경영재 스포츠선임기자

[2018 남북 어린이 정상회담] "남북 어린이 함께 공부하고 뛰놀면 한민족이라는 사실 금방 알게 될 것"

◇ 소년조선 명예기자·탈북 초등생... 한자리 모여 '남북' 주제로 대담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남북은 '비핵화(핵무기가 없어짐)' 합의를 이뤘고,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안에 '중전(전쟁을 끝냄)'을 선언하기로 뜻을 모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분단 이후 65년간 지속한 대립 체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소년조선일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해 지난 1일 '2018 남북 어린이 정상회담'을 마련했다.



본지 명예기자들과 탈북 초등생이 한자리에 만나 '남과 북'을 주제로 대담하는 자리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한학교인 서울 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는 이명현(서울 언북초 6)·류찬영(서울 명덕초 6)·김연우(서울 중대부초 5)·서소영(서울 송의초 4)·김희엘(서울 신구초 3) 학생이 남측을,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정혜은(5학년), 김영선·박성민·조원명(이상 4학년), 이미나(3학년) 학생이 북측을 대표해 이야기를 피웠다.

◇ 남북 학생들 "정상들 손잡았을 때 가장 뭉클"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고 들었어요. 제가 올해 11살이거든요. 남과 북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리고 살았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함께 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북측 박성민 군)

11년만의 정상회담...
제가 올해 11살이라 그런지
더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이날 남북 어린이 정상회담은 지난달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남북 어린이 대표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는 남북 정상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남측 류찬영 군이 "정전과 종전은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북측대표
박성민군



남북 어린이 대표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처음 악수한 순간을 꼽았다. 북측 이미나 양이 "통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을 보니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인정!" "저도요!" 등의 말이 튀어나왔다.



서로 다르게 돌아갔던 남과 북
시계도 같아졌으니 금방
통일이되지 않을까요?

남측대표
김연우양

남측 김연우 양은 "남북이 시간부터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도 뜻깊었다"고 했다.

"판문점 평화의집에 시계가 2개 걸려 있었잖아요.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표준시를 서울과 맞추겠다고 한 게 남북이 조금씩 하나가 돼 간다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 서로 묻고 답하며 진심을 확인하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들은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 1세대와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탈북 2세대로 구성됐다. 한국에 살게 된 사연도 제각각이다.

"저는 일곱 살 때 아빠, 형과 한국에 왔어요. 북한과 한국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만삭인 상태로 한국에 오신 지 하루 만에 저를 낳으셨죠."


북측 대표들은 "아직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다. 남측 대표들은 안타까운 듯 한숨과 탄식을 내뿜었다.

남측 서소영 양은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북한 방송을 보면 한국을 나쁘게 말하고, 큰 소리로 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됐어요. 북한 사람들과 북한 출신 친구들 모두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북측 조원명 군은 한국에 와서 겪은 차별에 대해 털어놨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밀치면서 '짜증 나게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건드려?'라고 말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 남과 북,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남측 이명현 군은 "영토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민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 정혜은 양은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함께 놀고 공부하다 보면 '원래 한민족이었던 만큼 언제 싸웠느냐는 듯 잘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이 됐을 때 지금보다 세금을 2배 이상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남북 대표 모두 "끼꺼이 내겠다"고 답했다. "세금 때문에 통일을 고민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일을 2배로 해서라도 내고 싶어요. 돈이 좀 없어도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남측 류찬영 군이 말을 마치자 남북 대표들이 힘찬 박수를 보냈다. 아이들은 어스레 하나가 돼 있었다. 

두리하나 학생들의 부치지 못하는 편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께..

엄마! 엄마! 제소리 들리세요?
00이예요.

학교에서 편지 쓰는 날이라 저는
보고 싶은 엄마한테 쓴다고 했어요.
엄마가 계신 곳도 덩고 비가 오나요?
우리 학교는 지금 비가 와서 좀
시원해요. 어제까지 더웠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사주신 자전거를 어제
하루 만에 배우고 오늘은 아주 잘
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조00(10세)-

준남아 안녕, 나 00이야..

나는 한국에 와서 천기원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갈수 있대.
그러니깐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너도
천국에 갈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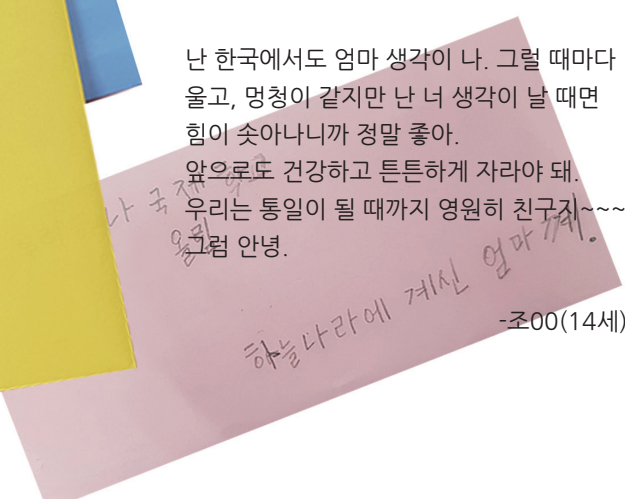
아, 그리고 보니 너와 내가 떨어진지 꽤
오래됐지? 넌 그사이 키도 많이 컸겠다.
난 그냥 그대로야.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난 우리 엄마가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너무 슬펐어.

너는 꿈이 있니?
나는 꿈이 있어. 그 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님이 되는 거야.
난 목사님이라는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갈 거야.
너도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
꼭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난 한국에서도 엄마 생각이 나. 그럴 때마다
울고, 멍청이 같지만 난 너 생각이 날 때면
힘이 솟아나니까 정말 좋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돼.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영원히 친구지~~~^^
그럼 안녕.

-조00(14세)-





돌아가신 아با께,

안녕하세요?

아빠 저 00예요~ 아빠 하늘에서 잘 계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두리하나 국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아با께 하나님을
알려 드렸을 텐데.....

아빠,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북한에
있을 때 량강도에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던
그때가 너무 그립고 행복했었어요.

아빠 보고 계시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그때 아빠는 저를 정말 많이 예뻐 해주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힘들 때 마다 아빠가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특히 엄마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시면서
힘들게 사세요...
하나뿐인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빠 저는 제 미래와 엄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엄마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모실게요.
아빠의 몫까지 더해서 열심히 살게요.

아빠! 저는 아با를 절대 안 잊어요.
천국에 가서 아با와 꼭 만나요....
사랑하는 아바를 위해 기도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

-황00(17세)-

한 번도 못 만난 오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00이라고 해요. 엄마는
똑같고, 아빠는 다르지만 그래도 오빠니까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있겠죠?
엄마가 오빠 버리고 와서 원망스럽죠?
하지만 엄마는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와서도 매일 오빠 생각하고 울어요.
오빠가 5살 때 국 끓일 두부를 한입 먹는
걸 혼내고 때린 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걱정했어요. 오빠가 밥은 잘
먹는지, 새 엄마는 잘 해주는지, 엄마는
한국에서 잘 먹고 잘사는데 오빠만 두고
왔다고 울고, 또 울어요. 나는 그런 엄마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오빠 자랑할 때 나는
질투 나서 철없이 화냈어요.
나는 엄마를 4주 동안 안 봤는데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오빠는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는 오빠가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중국에 있을 때, 아با한테 맞을 때,
오빠가 있었으면 그나마 힘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오빠랑 나랑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동00(15세)- 



섬김의 은혜

얼마 전 두리하나 식구들과 하와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 이미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 함께 동행했다.

이재은목사 (군남교회담임, 행복한 커피학교강사)



북한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탈북자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와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은 사치였다. 배가 고파서 넘어왔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던 그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존재였을 것이다.

탈북 여성들과 일주일간 동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막 같은 굳은 마음이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섬겨준 캐나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바쳐 우리를 섬겨 주었다. 삶에 찌든 우리들에게 침과 여유를 선물해 주었다.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캐나다 분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마치 거짓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이용수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섬김을 경험하고,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상처받고 찢겨진 자들을 돌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탈북자들에게 치유를 선사했다.

섬김은 참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다. 섬기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기쁨을,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자유가 전해진다. 섬김은 결국 삶의 변화와 생명의 열매, 전도로 이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섬김’을 실천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여자와 아이들, 천대받고 소외받던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보잘 것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 우리를 위한 어린양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섬기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섬겼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따르길 원한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길 원한다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캐나다 평신도 사역자들처럼 섬길 때 상대방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섬김을 받은 탈북 여성분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섬김의 빛을 갚으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됨을 새삼 깨닫는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커피는 섬김의 도구다. 커피 섬김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만이 퍼지길 소망한다. 



여성사역팀
드림교회



인사팀
삼성생명



여성회
자유총연맹



어머니 봉사단

급식봉사
급식봉사 신청
(02-532-2513)

급식봉사로 섬겨주신
자원봉사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팀



다음교회



창신교회



분당우리교회



무지개팀



영화로운교회



온누리교회



송내중앙감리교회

두리하나 국제학교 신입생.편입생 모집

1. 교과 :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
2. 자격 : 탈북청소년(연령, 학력 제한없음)
3.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3
4. 문의 : 02-532-2513
5. 특전 :
 - 전교생 무료숙식 제공(수업료 없음)
 - 우수졸업생에게는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http://www.durihana.ac>

두리하나를 함께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 | |
|------------------|--|
| 정착지원팀 | 교육(외국어, 컴퓨터, 악기 등) 탈북자 취업 및 진로상담
탈북청소년 고민상담, 친구 되어주기(외) |
| 사회사업팀 | 행사기획 및 실무(외) |
| 문서사업팀 | 소식지 제작 및 편집.발송(외) |
| 정기모임팀 | 월요기도모임 준비(찬양인도 및 반주)(외) |
| 국제인권팀 | 탈북자난민을 위한 국제 인권운동참여 및 외국어 통역 · 번역(외) |
| 인터넷 관리팀 |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외) |
| 두리하나국제학교팀 | 두리하나 국제학교 방과후 활동 학습지도교사 모집 |





| 천기원목사님 동정

- 4/5 캄보디아 프놈펜 슬라엥중양교회 입당예배
- 4/26~5/11 휴스턴 순복음교회 집회
First Love Harvest Church 집회
Santa Fe City of Faith Christian Fellowship 집회
- 5/20 양문교회 집회

| 탈북청소년 연극단 “마이스토리” 창단식



5월 12일(토), 세븐파이프에서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 후원으로 탈북청소년 연극단 “마이스토리”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단은 탈북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연극을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도록 해주고자 창단 되었습니다.

| 제37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제37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가 5월 6일 쿼크플러싱에 있는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와 두리하나USA가 한국일보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서 정상급 성악가 및 연주자들은 가곡과 성가 등 주옥같은 곡들로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 크리스찬상조, 두리하나 통해 북한동포·탈북자 돕기 '공헌활동'

크리스찬상조 김현재 대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회사 이념에 따라 두리하나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및 탈북자들에 대한 후원 활동을 지속해 국내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소망하며 사회나눔 공헌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 두리하나 짜장면 데이!



4월 15일(주일), 두리하나 인근 중국식당 연화산에서 짜장면, 탕수육 등 풍성한 점심식사를 마련해 주신 사랑의교회 사랑광주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6회 탈북동포주일 기념예배

탈북동포들의 고통을 이해...

두리하나는 일 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탈북동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매년 6월 넷째 주일을 탈북동포주일로 지정하여, 느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동반자 의식 고취...

두리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을 이루어 갈 동반자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동기 부여와 참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신앙에 관한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인과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우리 모두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2018.6.24(주일)

오전9시 오후12시



특송 : 와글와글합창단



김종순목사
(송내중앙감리교회)



이종순목사
(창원임마누엘교회)



천기원목사
(두리하나교회)



북한음식 체험

강냉이국수

창원임마누엘교회

2018.6.17(주일) 오후7시

송내중앙감리교회

2018.6.24(주일) 오후3시

주최 (사) 두리하나 후원 CBS febc 극동방송 CTS 기독교TV 국민일보 ChosunMedia 조선일보 문의 (02) 532-2513



“사단법인 두리하나”를 후원합니다.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납부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8일
주소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6자리		
예금주 연락처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 / 제휴사 소개 메뉴 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산림,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삼성증권.

두리하나는...

북한동포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하며 평화통일에 헌신 할 일꾼들을 양성하여 남북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하는 평화운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리하나의 받은바 소명은...

탈북자들을 통하여 닫혔던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중국교회와 연합하여 다가올

21세기 통일한국 시대가 이루어 질 때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Back to Jerusalem"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로 "통일한국"을 주실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위하여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릎과 두발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북한선교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7)"

♡ 후원 방법

· 계좌이체(예금주 : 사단법인 두리하나)

농협은행 : 088-17-007375 | 외환은행 : 335-22-03034-7 | 신한은행 : 100-023-334747

우체국 : 012872-01-002780 | 국민은행 : 342301-04-012737 | 우리은행 : 122-387319-13-001

기업은행 : 302-056162-01-018

해외 : paypal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체크), 현금등을

Durihana, PO Box 4429, Santa Fe, New Mexico 87502-4429로 보내면 됩니다.

· 후원 회원이 되시면

1.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북한선교 소식지 「두리하나」를 발송해드립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한 탈북 영상물을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ARS

한통의 전화로
사에게 생명을...

060-700-1021

한통화 : 3,000원





사단법인 두리하나

두리하나 국제학교

두리하나 그룹홈

두리하나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durihana.com

E_mail: durihana@korea.com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3

TEL: 02-532-2513(1577-9121)

FAX: 02-532-2517

GLOBAL

Homepage: www.durihanamission.org

E_mail: durihana@gmail.com

Address: 1533 St. Francis Dr., Suite C,
Santa Fe, NM 87505

TEL: 1-505-428-0634